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회의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주요당 사업문제를 위하여 6월 12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의 당면활동과 당건설에서 나서는 주요과업들이 토의되였다. 회의에서는 전당의 각급 조직들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정신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결정관철에 불리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치밀하게 하며 올해 당 및 국가사업전반에서 당조직들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개선

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고 해당한 혁명적과업들을 포치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중요하게 당안에 강한 규률준수기풍을 세우고 일부 당일군들속에서 나타나는 세도와 판료주의를 비롯한 불건전하고 비혁명적인 행위들을 표적으로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데 대하여 토의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검사위원회와 지방의 각급 및 기층규률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직기구적인 대책과 효율적인 사업체계를 수립하며 감독 및 규률심의, 책벌규범들을 더욱

세분화하기 위한 당면사업과 전망과업에 대하여 밝혀주시면서 검사위원회의 사업보좌기구인 규률조사부서들의 권능과 직능을 확대강화하고 당의 규률건설로선의 본질과 그 강화의 합법적요구대로 엄격한 감독사업체계를 규률심의질서, 엄정한 책벌제도를 실시함으로써 당중앙의 유일적령도실현과 당의 광범위한 정치활동을 강한 규률제도로 철저히 담보해야 한다고 언급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혁명정당의 본성과 사명과 임무 즉 본태가 철저히 계승되고 사회주의집권당의 전투적강화발전을

위해서는 전당의 당조직안에 높은 정치성과 투쟁기풍, 혁명적인 작풍과 공산주의적도덕풍행을 장려하고 배양시키는 사업을 선행시켜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당규약 및 당규률 준수기풍과 당의 로선과 방침집행정형, 건전한 작풍구현과 도덕생활정형에 대한 감독사업체계를 시정체계를 엄격히 세우는것이 필수불가결의 선결과업으로 나선다고 지적하시였다. 회의에서는 당규률건설을 당건설과 당활동의 선결적인 중대과업, 중요로선으로 내세우고 당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다지

고 당정치활동에서 혁명성과 전투성을 제고하며 당의 역할과 품모를 세련시키고 개선강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중요한 전략적당건설사상이 천명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당규률건설에 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독창적인 사상리론을 당사업과 활동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대책들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또한 회의에서는 당의 결연지도사업을 개선하고 당내부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타 중요문제들도 토의되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황해남도 해주시에서 금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6월 15일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로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본부당위원회에 전하시면서 지원약품들을 해주시 당위원회에 보내주며 시당위원회가 전염병으로 앓고 있는 대상세대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중앙위원회 부서초급당 위원회들과 당세포들에서 해주시와 강령군일대에서

발생한 전염병치료에 필요한 약품들을 성의껏 마련하여 보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잘함으로써 당중앙위원회 일군들로서의 마땅한 본분을 다할데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금성장내성전염병의진자들에게 대한 격리대책을 빈틈없이 세우 전염병로를 철저히 차단하고 역학조사와 과학적인 검사방법으로 확실히 하며 발병지역에 대한 소독사업을 강도높이 진행하는 것과 함께 해당 지역의 보건기관들에서 극진한 정성으로 환자들에 대한 집중치료사업을 잘함으로써 전염병을 하루속히 근절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은정어린 약품들이 해주시의 주민세대들에 전달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성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황해남도의 인민들을 위해 가정에서 마련하여 보내주신 약품들이 16일 해주시의 주민세대들에 전달되였다. 인민의 생명안전을 제일중대사로 내세우고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인민들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고통을 함께 나누는 당중앙의 육친의 정이 어린 사랑의 불사약을 받아안은 해주시의 인민들은 고마움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며 《김정은동지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목청껏 외치였다. 그들은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참



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행을 가져주는 것보다 더 참대한 혁명사업은 없다는 숭고한 리념을 지니시고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로 온 넋을 불태우시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이 세상 제일 위대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뜨겁게 새겨안았다. 룡당1동과 2동의 주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약품들을 받고보니 눈물만 앞선다고 하면서 우리 원수님과 같은 아버지는 이 세상에 없다고, 그 품을 떠나 우리는 한순간도 못산다고 마음속진정을 토로하였다. 시에동의 주민들은 원수님께서 전염병을 앓고있는 우리 해주시의 세대들

에 가정에서 준비하신 지원약품들을 빨리 전해주어 치료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태게 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라는 보도에 접하여 감격을 금치 못하였는데 이렇게 약을 받아안고보니 원수님께서 찾아오신것만 같아 온 집안식구가 기적처럼 일어났다고 격정을 터치였다. 해주시의 주민들과 일군들은 온 나라 가정의 평온과 웃음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은덕을 소중히 간직하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일심전력할 보답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 세상을 놀러우는 공화국의 불가항력의 원천 - 일심단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진행된 소식은 국내외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있다.

《김정은령도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 지도》, 《가장 세련되고 로숙한 령도자의 위상 또다시 과시》, 《인류는 머지않아 유일무이한 리상국가로 우뚝 솟은 조선의 모습을 목격하게 될것이다》...

세계인론들이 러친 이 감탄은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국가와 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승리의 밝은 미래로 이끌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애호와 충성의 목소리이다.

## 환없이 친근하고 자애로운 아버지

위인의 세계를 헤아린다는것은 보통사람으로서의 힘든 일이다. 더우기 고급동서 어느 력사의 갈피에서도 찾아본적 없는 절세의 위인 김정은령도자께서 지니신 크나큰 세계를 다 안아본다는것은 너무도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 세인이 우러르는 대성인이시기 전에 인민의 친근한 아버이시기에 경애하는 그의 모든 사색과 실천은 언제나 인민과 맞닿아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는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회의장에 여러가지 인민소비품들을 가지고오셨던것이였다.

거기에는 아이들의 혁피와 인민들이 리용하는 치약을 비롯하여 최근 상업봉사상품들을 통해 인민들에게 공급되는 소비품들이 다 있었다.

경애하는 그의께서는 소비품들의 질과 가격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지적하시면서 온 나라 가정세대들에게 귀는 생활살보편을 속속들이 헤아려주시었다.

회의참가자들은 너무도 큰 충격에 몸둘바를 몰랐었다. 그들만이 아니었다. 그 소식에 접한 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하신 둘째 의정에 대한 결론에서 삼반년기간 여러 정치적계기를 통하여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국가제일주의정신을 제고하고 당과 국가,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을 온 세상에 뚜렷이 시위하였다고 하시었다.

사회주의조선의 불가항력! 하다면 엄혹한 환경과 시련속에서도 더 높이 발휘되고 시위되는 사변적인 이야기라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로 전하려고 한다.

이에 대해 세상을 들었다놓는 사변적인 이야기라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로 전하려고 한다.

## 나라 인민들모두가 놀라움과 고

마음에 격정을 누를길 없었다. 어찌 그렇지 않랴.

소비품! 말그대로 그것은 사람들이 일상생활과정에 리용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흔한 물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당과 국가의 중요 정책과 결정들을 도의체택하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들이 쓰는 소비품들의 질과 가격문제에 이르기까지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실줄 누가 생각할 수 있었겠는가.

사실 소비품의 질에 대해서는 일군들자체도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생각하고있었다.

다만 지금이 어떤 때인가.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제재압살책동이 계속되고 몇해째 세계를 휩쓰는 악성전염병과 자연재해로 나라의 경제형편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는 엄혹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속에서 누가 소비품의 질 문제에 대해서까지 생각할수 있었랴. 그것을 쓰고 사는 인민들조차 떼사름처럼 흘러보내던 문제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그의께서만은 그렇게 하실수 없으셨었다.

그이께서만은 아무리 나라형편이 어렵다 해도 자신께서 하느처럼 떠받치는 인민들이 겪고있는 사소한 불편도 그대로 스쳐 지나실수가 없으셨었다.

진정 소비품들의 무게는 얼마나 가지 않는것이였지만 그 하나하나에 실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정의 무게는 그 무엇보다도 대비할수 없이 크나큰것이였다.

바로 이런분이사기에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밝혀주신 하반년도에 수행할 국가사업의 방향과 실행대책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인민을 위한것이였다.

그날의 사업들은 이야기를 전해갈수록, 회의장에서 하신 경애하는 그의의 말씀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이 나라 인민들의 눈가에는 지나온 6개월의 나날들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민헌신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어려웠다.

어떻게 밝아온 새해의 첫아침이였던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와 함께 밝아온 이 나라의 첫아침이였다.

그렇게 시작된 경애하는 그의의 위민헌신의 장정이였다. 별명의 그 자욱자욱은 수도시민들의 살림집문제해결을 위한 화성지구와 함남도인민들의 남보장실을 위한 대우모련포도실농장건설의 착공식장에도 찍혀있고 공화국전력부력의 현대성과 절대적강세를 파시던 《화성로-17》형의 발전장에도 찍혀있었다.

그의 발사장에도 찍혀있었다. 인민의 리상거리로 훌륭히 일떠선 송화거리와 평양의 새 경관 경루동의 회한한 살림집에도 찍혀있었다.

어찌 이뿐이랴. 건국이래 처음으로 맞든 방역전쟁의 나날 한 몸의 경제형편은 그 어느때보다도 어렵다. 게다가 지금은 건국이래의 대동란이라고 말할수 있는 엄혹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속에서 누가 소비품의 질 문제에 대해서까지 생각할수 있었랴. 그것을 쓰고 사는 인민들조차 떼사름처럼 흘러보내던 문제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그의께서만은 그렇게 하실수 없으셨었다.

가까이, 더 가까이 다가가서 아픔도 괴로움도 고통도 함께 떠받치는 인민들이 겪고있는 사소한 불편도 그대로 스쳐 지나실수가 없으셨었다.

이 세상 좋은것은 인민들에게 다 주고있으시어 자신께서는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로고에 로고를 덧쌓으시고 인민들이 겪는 사소한 불편도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시는분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그의의 불보다 뜨거운 그 정은 언제나 사랑의 생명수가 되어 온 나라 인민들의 피줄마다에 뜨겁게 흘러들고있다.

이런 자애로운 인민의 아버이를 수령으로 모시였기에 그처럼 어렵고 그 어느때보다도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도 이 땅에서는 령도자의 숭고한 뜻을 충심으로 받들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것이 역척불변의 국풍으로 되고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장성고 전진의 동음이 새겨져 울려나오고있는것 아니겠는가.

그것은 그대로 경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승리의 개가로 울려 퍼지고있다.

하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지난 6개월간 국가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의 발전과 위기대응관리측면에서 거둔 진일보의 성과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신것이였다.

정녕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감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해 열사복무의 순간순간에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인민사랑과 탁월한 령도능력은 최상의 시련도 이겨내게 하고 값비싼 귀중한 성과들을 련이어 이룩하게 하는 승리의 요인으로 되고있다.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주시고 친히 《경루동》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시었으며 일사하는 집주인들의 모습도 친부모의 심정으로 정경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

이렇듯 자애로우신분을 아버이로 모셨기에 지구상 그 어디서나 슬픔과 비애의 폭성이 터져나오있는 오늘날 이 땅에선 행복의 웃음소리가 나날이 높아가고 있는것이였다.

공화국인민들의 모습엔 비껴있었다.

오늘이 비록 미증유의 엄혹하고 고강한 시기이기는 하지만 이 고비를 더 강해지고 더 세련되는 기회로 삼고 역센 의지와 완강한 분발력을 발휘하여 활기찬 국가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놓을 심심과 배짱이.

시련속에서 더 역세여지고 굳세어진 공화국인민들모두가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밝혀주신 과업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다.

공감마다 협동별마다 대가님비적진실감마다 아니 온 나라 도처에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투쟁기세가 비장하고 조되고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이번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수립된 전진적이며 혁신적인 계획들을 류례없는 국난속에서 사소한 주저도 없이 기어 완수하여 올해를 자랑찬 성과로 빛내일것이다.

난관은 겹겹이고 시련은 앞을 막아도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화석처럼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는 확정적이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의 불가항력!

그 원천은 만고의 영웅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으로 수놓아지는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와 그이만을 믿고 따르는 이 나라 인민들의 일심단결에 있다.

공화국은 앞으로도 이 세상 그 누구도 가질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힘차게 전진하며 부흥강국의 위대한 미래를 더욱 앞당겨올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

이 땅에선 누구나 심장에 간직하고 사는 말이 있다.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 믿고 따르리라》

이 세상 끝까지 원수님만을! 여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가식도 변심도 없는 가장 순결하고 가장 열렬하며 가장 진실한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어려웠다.

공화국인민들의 마음속에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충정심이 역센 기둥으로 박혀 그 어떤 천지풍파가 몰아치더라도 끄떡없었다.

올해 삼반년에만도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울려나오는 이 나라 인민들의 가슴속 깊은 곳 심중의 목소리는 얼마나 많았겠나.

《정말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궁궐같은 살림집을 무상으로 안겨주시다니... 그저 노동자들을 아껴주는 고마운 나라를 위해 힘껏 일한것밖에 없는데... 경애하는 원수님! 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대를 이어가며 끝까지 원수님만 따르겠습니다.》

## 병토의 천재

# 교육자양성의 본보기대학으로 꾸려주시어

교육은 나라의 흥망과 민족의 장래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교육을 떠나서는 사회적진보와 번영을 이룩할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과 밝은 앞날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특히 사람의 지적두뇌가 발전하는 중요한 단계인 어린시절에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는가에 따라 현실을 보고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달라지며 공고해진다. 뿌리가 든든해야 충실한 열매가 달리는것처럼 학생전어린이교육과 소학교교육을 새로운 과학적전제 위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낼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밑에 초등교육이 중시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주체107(2018)년 1월 대소환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개진된 평양교원대학을 현지지도하신것은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의 나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의 임무와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헤아려보시였기때문이다.

평양교원대학은 학생전어린이 및 초등학교의 교육자들을 키워내는 대학이다.

일찌기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는데서 교원대학들의 임무와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06(2017)년 2월 평양교원대학에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우에 올려세워야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새세대 유능한 인재로 키워낼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평양교원대학은 전공실천실기교육을 할수 있는 다기능교실들과 장서능력이 크고 국가망을 통하여 인민대학습당과 과학기술전당의 자료들을 열람할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대학들의 유능한 교수들로부러 강의도 받을수 있게 꾸린 도서관 등 교육조건과 환경을 훌륭히 갖춘 대학으로 변모되였다.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신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소학교교수방법실기실, 자연실험교수방법실, 어린이기능개발기술보급실을 비롯한 여러 교실들을 돌아보시고 교원들의 강의도 주시게 들어주시며 대학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치하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첨단교육설비들과 현대적인 교구비품, 관리운영설비들을 갖춘 평양교원대학을 돌아보시는데 대단히 기쁘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미래를 담당할 교육자들에게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준것같고 금방씩을 마련해준것같은 심정이라고, 조국의 창창한 미래가 눈앞에 선 것처럼 기쁘고 뜻내 만족해하시

었다.

또한 학생들이 자연과 사회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체득하고 지적능력과 응용능력, 자립성을 높일수 있도록 교육과정안을 개선 완성하는 문제, 실험실습의 비중을 높이고 교육사업을 학생들의 창조적능력을 높이는데로 확고히 지향시키는데 대한 문제,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열의를 적극 높여나가는

목 할데 대한 문제 등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서 강령적인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이렇듯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해 그토록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평양교원대학은 어린이들의 교육을 담당할 교육자양성의 원종장으로서는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훌륭한 교육자들을 더 많이 양성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개선하여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다.

그이께서는 얼마전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현 시점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바로가질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교육은 당면한 가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전장적인 사업이며 교육에 대한 정확한 노력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된다고, 교육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정책적지도와 교육내용에 대한 기술적지도도 포함하여 국가적으로 교육혁명을 위한 지도와 방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언명하시었다.

절세위인의 탁월한 령도에 의하여 공화국의 교육사업에서는 보다 새로운 전환이 이룩될것이다.

리은심

공화국인민이 비상방역대전에 떨쳐나선 그날로부터 수십일이 흘렀다.

엄혹했던 이 나날은 공화국인민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의 품속에서 살고있는가를 다시한번 절실히 느끼게 해준 날과 날들이였다.

머칠전 저녁이었다. 늦게 퇴근길에 오르는 나의 앞에서는 그 급중학교에 다니는 뜻깊은 두 처녀가 걸고있었다.

한 처녀의 뒤모습이 눈에 익어 다시 보니 우

수련에 사는 순애였다.

그들이 주고받

는 이야기를 듣는 나의 입가에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떠올랐다.

순애가 말을 했다. 《...글쎄말이야. 오늘 새벽 우리 할머니가 날 보고 약국을 아

는가 물어보지 않았나. 약국을 안다는데도 할머니는 아는 길도 물어보고 가라고 했다며 날 막 아이취급하는데 내가 뭐 아이인

가. 당당한 고급중학교 졸업반을 훌륭히 수행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순애는 불이 부어 밭지 않게 두렷거렸다. 그의 말인즉

는 새벽 갑자기 동진로소의사인 어머니가 열이 나기에 어머니의 왕진가방에서 약을 꺼내려고 하니 어머니는 그 약들은 담

복의 창가들에 하나둘 불이 꺼지고 인민들이 꿈나라로 갈때도 이 땅의 약국들은 불이 밝다.

수도 평양만이 아니다. 저 멀리 백두산기슭 립산마을의 약국에도 불개연전마을 약국에도 이밤 불이 밝으리.

나는 상상해본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아마도 동이 틀 때까지 꺼지지 않는 그 불빛들은 《별부리》를 이루고있을것이다.

하늘의 별들도 광원이 있어 빛난다.

그 광원은 태양이다. 불빛이 꺼질줄 모르는 이 나라의 약국들, 그 사랑의 집들의 밝은 빛에도 광원이 있다.

인민을 하느처럼 받드시며 인민을 위해서라면 저 무변광대한 우주에서 별이라도 따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인민사랑이 비껴 그 집들은 언제나 밝은 빛을 뿌리며 인민들

을 따듯이 맞아주는것 아니라. 위대한 인민의 어머니의 사랑속에서 불밝은 집들.

그 꺼지지 않는 불빛에 어려여 온다. 우리 원수님 계시는 집무실창가의 불빛, 이 한밤중에도 비상방역대책을 세워주시고 인민을 더 잘살게 해주시려고 밤

을 지새우실 경애하는 그의

다는것이였다.

할머니가 문밖을 나서서 순애에게 했다는 다음의 말은 나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아마 이 새벽에도 약국에서는 불을 환히 켜놓고 사람들을 기다리고있을게다.》

자애로운 모습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빛을 안고 공화국인민은 건국이래 최대의 동맹이라고 할수 있는 오늘날의 시련을 더덕 정, 일심단결의 힘으로 이겨내며 창조와 건설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시련속에서 더욱 강해지고 영웅조선의 기개를 남김없이 떨치고있다.

순애의 말은 계속되였다. 《할머니는 아버지원수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

자고 하셔. 저 우리가 바라보는 원수님건강

과 안녕뿐이라고 말이야.》

《정말 우리 어머니도 아버지원수님께 편지를 쓰자구 하시더구나. 아버지원수님의 안녕을 바라는 마음은 너희 집이나 우리 집이나 똑같구나.》

구미이 없고 그지없이 소박하고 친절한 어린이의 말이지만 심장을 찡하게 울려었다.

어찌 두 처녀애들의 가정뿐이랴. 생활의 단면에 시대의 지향, 승리가 어린다.

저 처녀애들 가정의 뜨거운 마음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인민의 간절한 마음이고 오늘 우리 시대의 지향인것이다.

밤은 소리없이 깊어가고있었다. 그러나

### 겨레의 통일 속망을 물어주시려고 (8)

1990년대의 첫해에 새로운 통일 방안들을 련이어 제시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북과 남, 해외의 3자런대로 그것을 철저히 실현하라는 날로 높아가는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기 위하여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역사적인 범민족대회를 소집하도록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이미 1980년대말부터 북과 남, 해외를 포괄하는 범민족적인 대회를 소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해주신 조치에 따라 1989년 7월 세계 여러 지역의 해외동포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이 평양에 모여 조국통일추진대회를 가지고 역사적인 범민족대회를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

에 판문점에서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후에는 남측과의 합의를 거쳐 북과 남, 해외의 3자가 모여 범민족대회를 진행할데 대한 공동선언문이 발표되었다.

조국해방 45돐이 되는 1990년 8월 15일은 겨레의 크나큰 관심속에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가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과 서울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안건을 가지고 동일한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범민족대회를 계기로 겨레의 통일 열기는 더욱 세차게 분출되었다.

은 삼천리를 통일의 합성으로 진감시킨 범민족대회가 있는지 며칠후에 주체79(1990)년 8월 18일이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범민족대회에 참가하였던 남측추진본부 및 해외추진본부 대표들과 북과 남, 해외동포대표, 재유럽동포대표,

일본추진본부대표단, 재소동포대표단(당시), 재중동포대표단, 재일조선인대표단 성원들을 만나주시었다.

이 자리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은 민족이 단결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자》라는 역사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연설에서 조국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1990년대의 첫해에 열린 이번 범민족대회는 1948년에 이은 남조선정당, 사회단체 대표자연설회와 더불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서 특기할 역사적인 회합이었다고 하시면서 대회가 거둔 성과에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또한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의 방향과 방도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면서 대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민족대단결의 가치, 조국통일의 가치를 더욱 높이 들고 헌신적으로 투쟁함으로써 모두가 조선의 참된 애국자, 조국통일의 투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안겨 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날의 연설은 범민족대회 대표들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살고있는 모든 동포들이 조선민족의 넋을 간직하고 참다운 통일애국의 길에 떨쳐나설수 있게 하는 강령적인 가르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고 참된 애

국의 지침을 받아안은 범민족대회 대표들은 북과 남, 해외의 3자런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벌려나갔다.

범민족대회에서 북과 남, 해외의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체로서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을 내오기로 결의한 대표들은 이 결의를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그해 11월에 베를린에서 북과 남, 해외의 3자실무회담을 가지었다.

회담에서는 범민련을 명실공히 전민족적인 통일운동기구로 결성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대책들을 토의하였으며 범민련의 활동방향과 당면과제를 밝힌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3대원칙의 확고한 견지, 연방제방식의 통일국가창립, 외세의 간섭배격과 민족의 자주성확립, 남조선에서 미군과 핵무기의 철수 등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강령초안과 범민련의 성격과 사명, 활동원칙과 조직구조, 중앙조직과 지역구구를 규정한 규약초안을 심의하고 채택, 확정하였다.

이로써 상설적인 전민족통일선체인 조국통일범민족련합이 나오게 되었으며 그후 1999년까지 해마다 8월 15일을 계기로 온 민족의 관심과 기대속에 범민족대회가 진행되게 되었다.

이렇듯 조국통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1990년대는 민족대통일전선이 마련되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운동이 가일층 강화발전시킨 격동적인 년대로 빛나게 되었다.

허충혁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을 위한 99 통일대축전 10차 범민족대회 (락칭 범민족통일대축전)》(1999년 8월)

## 1990년대 민족단합의 새로운 장을 펼쳐주시어

## 반통일세력과의 투쟁이 통일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

오늘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우리 겨레의 투쟁은 내외반통일세력의 엄중한 도전에 직면하고있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인 윤석열이 취임하기 전부터 역사적인 북남 수뇌상봉을 《평화의 쇼》, 《연극》으로 협공하고 《북은 주적》, 《선제타격》과 같은 말발을 서슴없이 쉼터대며 동족대결홍수를 드러냈다. 이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동족대결경이기에 집권하기 바쁘게 《북비핵화》와 《한미동맹》강화, 《한미일공조》를 떠들며 북침전쟁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정권패당은 최근에도 그 무슨 《북도발》에 대처한 《철저한 대비태세》와 《극조적고 단호한 대응》에 대해 떠벌이였다.

한편 미국은 《한》미합수특수작전련합훈련이나, 《신박나포 및 검색훈련》이니, 미사일정보훈련이나 탄도미사일탐지 및 추적훈련이니 하는 것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윤석열패를 공화국과의 군사대결에로 적극 부추기고있다. 또한 핵확산포함을 비롯한 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이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의 이러한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으로 하여 조 선반도의 군사적긴장은 날로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현실은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가 내외호전세력의 전쟁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요구하고있다.

민족이 바라는 평화와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반통일세력과의 굴합없는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는것은 통일위업수행의 필수적요구이다.

홀려온 조국통일운동사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위업에 역행하여 전쟁대결책동에 미쳐달래는 반통일세력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통일위업을 이룩할수 없으며 겨레가 행진할의 참화까지 입을수 있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반통일세력을 반대하는 투쟁속에 이 땅의 평화도 있고 조국통일도 있다.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이 미국과 윤석열(정권)의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용당하다.

참략적인 외세와 남조선의 반통일세력이 아무리 기세를 부려도 자주,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우리 겨레의 힘찬 진군을 막을수 없다.

은 겨레는 애국애족의 뜨거운 열기와 민족의 밝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반통일세력의 전쟁대결책동을 단호히 거부하며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가야 할 것이다.

전영일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반공화국 전쟁책동을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 민족의 대, 애국의 대가 꽃꽂이 이어진다

### 아담한 새 교사에서

얼마전 총련 나고야조선초급학교 새 교사가 일떠였다.

나고야조선초급학교는 해방직후 발족하였던 국어강습소를 모체로 하여 발전해온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이다.

지난 기간 이 지역의 동포들은 민족교육을 지키고 살리는 길이자 곧 민족의 넋을 지키고 이어가라는 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학교사업에 성심성을 다하였다.

동포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에 새 교사가 일떠선것을 축하하여 나고야조선초급학교에서 모임이 열렸다. 여기에는 총련일군들과 학교 교직원, 학생들, 학부모들과 각종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동영상편집물과 사진전시회 등을 통하여 학교가 걸어온 77년의 력사와 민족교육을 위해 바친 전세대 동포들의 순결한 애국지성을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모임에서 교장은 동포들의 물질장려의 지원으로 일떠선 아담한 새 교사에서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배우게 되는데 대하여 긍지높이 이야기하면

서 《민족교육을 지키고 발전시키자》를 위하여, 새 교사에 아이들이 웃음소리와 힘찬 노래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힘합쳐나가자.》고 힘차게 호소하였다. 각계층 동포들도 조선학교의 전통과 명예

**뜻 깊은 입학식**

얼마전에 진행된 2022학년도 총련 조선대학교 입학식은 제일동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신입생들은 민족교육의 최고전당에서 마음껏 배워 애국위업의 역군으로 억세게 자라날 의지를 안고 교문에 들어섰다.

를 빛내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피력하였다.

이어 진행된 유치반어린이들과 초급부학생들의 공연과 졸업생들의 특색있는 합창은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민족의 대, 애국의 대는 꽃꽂이 이어지고있음을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 다시금 깊이 심어주었다.

경영학부의 김수강, 외국어학부의 권재섭을 비롯한 여러 신입생들이 바로 부모들의 뒤를 이어 애국의 한길을 주저없이 걸어가려는 의지를 안고 조선대학교를 지망하였다.

모든 신입생들은 조선대학교의 학생이 된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침으로써 부모들의 당부대로 참다운 민족인재로 자라날 열의에 충만되어있다.

애국의 바통이 이어지고있기에 총련 조선대학교는 재일 조선인운동의 팔간을 양성하는 원동장으로 더욱 굳건해지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민족교육의 최고전당 조선대학교 입학을 열렬히 축하합니다

## 태권도로 조국통일위업에 이바지한 애국지사 (2)

### 통일을 불러

남조선에서 태권도의 영향력이 확대되자 박정희독재(정권)은 그것을 불순한 정치목적에 악용하려 하였다.

1965년 1월중순, 매국적인 《한일국교정상화》를 위한 남조선, 일본간의 정치적 흥정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시기 박정희(정권)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맡고있던 예비장성전원이 회담지지성명을 발표하도록 압력을 가했다.

최홍희선생도 배외가 아니었다. 하지만 선생은 단호히 거절하였다. 태권도는 그 어떤 정치적목적의 통략물이 아니었던것이다.

그러나 박정희(정권)은 그해 2월 범법적인 《한일기본조약》에 가조인하였고 6월 22일에 정식조인하였다.

군사파쇼당국은 조약체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청년학생들을 탄압하기 위해 남조선전역의 대학들에 무장군인들을 투입하였는가 하면 위수령을 발동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시위행동을 가로막았다.

이런 일도 있었다.

박정희역도는 자기의 영구 집권을 위해 태권도측에서

협력해줄것을 《조선일보》사장을 통해 집요하게 요청해왔다.

그러나 최홍희선생은 그 자리에서 거절하였다. 그후에도 이런 요청은 계속되었지만 선생의 립장은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박정희는 벼슬과 돈으로는 선생을 매수할수 없음을 간파하고 그를 태권도조직에서 축출하기 위해 책동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을 강박하여 선생의 인격을 비방중상하게 하였고 각종 선전책자를 통하여 국제적범위에서도 국제태권도련맹을 휩쓸었다.

하여 선생은 독재자의 압력에 굴복하여 태권도를 버리느냐 아니면 죽거나 평생 영어의 몸이 되느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언제인가 최홍희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알다싶이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태권도자체에 대한 협박은 물론 나 자신도 신변을 보장받기가 힘들었다. 결국 선생은 외국으로 나갈것을 결심하고 1970년대초에 캐나다로 망명하였다.

그가 캐나다를 망명지로 선택한것은 태권도를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이는 중립국이기때문이기도 하였다.

당시 박정희(정권)은 최홍희선생을 돌려세우기 위해 그의 안해를 회유하고 자식들을 인질로 붙잡아놓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모든 정적고충을 이겨내고 농들의 협박을 물리쳤다.

그때의 심정을 담아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나 자신이나 내 가족보다도 태권도를 아끼고 중요시한다.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은 인간이기에 한계가 있다. 때가 되면 가야 한다. 그러나 민족은 영원하다. 그 민족의 영원한 흐름과 같이 태권도도 영원할것이다.》

문제는 이 태권도를 올바른게 후세에 길이 전달하는 것이다.》

최홍희선생은 캐나다에서 태권도활동을 벌리는 한편 캐나다조국통일회, 배달민족회, 해외민주예비역장병회를 조직하고 교포신문 《배달민보》를 펴내고 남조선독재(정권)을 폭로하고 통일운동을 벌려나갔다.

남조선군사파쇼(정권)을 규탄하는 최홍희선생의 성명이 일본의 교포신문인 《민족시보》와 미국의 여러 교포신문들 그리고 남조선신문들에 보도되어 사회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었다.

남조선(정부)은 최홍희선생의 애국적활동을 가로막

기 위해 《세계태권도련맹》이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 내어 최홍희선생을 압박하였다. 이것은 태권도계에 대한 의도적인 분열행위였다.

무거운 마음으로 몸부림치던 선생은 해외교포사회의 한성원으로서 민족통일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고자 애썼다.

하여 선생은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배달민보》를 통해 세상형편도 탐문하고 전망하면서 자신의 운명과 태권도세상의 길을 찾아 모지름을 썼다.

그러나 남조선에 친미사대매국세력이 있는한 민족무도-태권도의 분열을 막을수 없었다.

민족무도-태권도를 만들어낸 최홍희총재에게 남조선(정권)의 압박의 마수가 펼쳐져 시시각각 생명의 위협을 겪고있다는 소식이 공화국에 알려지고 이 사실이 곧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보고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가 남조선에서 군단장을 하다가 군사파쇼(정권)에 환멸을 느끼고 해외에 나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통일을 운동해 벌리고있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파지를 불분하고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었다.

하지만 선생은 용서받을수 없고 피땀이 그치지않는 오욕의 반성으로 하여 선뜻 공화국에서의 발걸음을 뺄수가 없었다.

그러나 평양으로 쫓리는데 마음만은 여태할수가 없었다.

본사기자



태권도강습을 진행하는 국제태권도련맹 최홍희총재

##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진하는 길》이라고 하면서 일본에 굴종해나서는 군사파쇼독재(정권)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사회적, 종교계, 문화단체 인사들 200여명도 3월 9일 《대일일국유외교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은 겨레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964년 3월 12일부터 제6차 《한일회담》의 막이 열리게 되자 이를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대중적진출은 더욱 강화되었다.

3월 24일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 500여명은 《한일회담》반대성토회를 가지고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청년학생들은 선언문에서

울사년(1905년)에 《보호조약》을 강요했던 일본제국주의가 강진년(1964년)에 또 하나의 《보호조약》을 강요하려고 날뛰는데 대해서와 민족을 배반하고 일본자본의 시녀가 되어 굴욕의교를 감행하는 박정희도당의 매국적 죄상을 날날이 고발하였다.

서울에서 라오른 투쟁의 불길은 로윈의 불길처럼 타번져 대구, 부산, 광주 등 남조선의 거의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거세찬 투쟁에 직면한 매국도당은 부두이 진행중인 《한일회담》을 중지하고 예정하였던 《외교부장급정치회담》도 보류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결국 《한일

회담》의 《조기타결》책동은 파란되고말았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투쟁은 1964년 6월 3일에 이르러 최고조를 이루었다.

이날 서울의 17개 대학과 지방의 2개 대학의 3만 2 800여명의 학생들은 1만여명의 시민들과 합세하여 대규모적인 반(정부)투쟁으로 일어났다. 하여 외세와 그 앞잡이들의 파쇼정치체제는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으며 사태는 4.19인민봉기의 그날을 방불케 하였다.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반대하여 3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의 기간에 서울을 비롯한 42개 지역에서 53개의

대학과 193개의 중고등학교의 학생 38만여명과 많은 시민들이 시위투쟁에 참가하였다.

남조선청년학생들은 투쟁의 광장에 떨쳐나서면서 《우리의 궁극적대안은 민족적자립임을 다시 확인하고... 민족적주체성을 확립할 정신적자세를 확립하자!》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학생의 거리들에서는 《일본의 경제권내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들의 숙적인 남부통일을 저해하게 된다.》, 《민족분열을 조장하여 불신감을 조성하는 원흉을 조사처단하라!》, 《민족분열을 일삼는 독재정권 물러가라!》, 《4.19정신으로 뭉쳐보자. 단결력이 남부통일할수 없다.》는 열렬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법외적인 《한일회담》, 굴욕협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계기로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반외세자주와 조국통일의 기운은 더욱 높아갔다.

본사기자 김영진

#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 — 남조선에서 대규모 집회 진행 —

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 학생학살사건 20년을 맞으며 대규모집회가 열렸다.

《효순미선 20주기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는 11일 서울에서 《효순미선 20주기 조총련계승 6.11평화대회》를 열고 남조선미국행정협정(SOFA)개정과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개선을 요구하였다.

집회에는 수천명에 달하는 각계층 시민들이 참가하였다. 제주해군기지, 부산에 설치된 미군세굴시험실, 《싸드》기지 등 미군사기지를 요구하는 각지의 주민들도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불평등한 한미관계 바꿔내자》, 《이 땅은 미국의 전쟁기지 아니다》라고 적힌 구호판들을 들고 반미구호들을 외쳤다.

6.11평화대회 추진위원회는 《이 땅을 미군의 군사기지, 전쟁기지로 내어주는 지지

및 시설건설과 확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미군에게 환경, 보건, 사법주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전면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 학생학살사건은 2002년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신효순, 정미선 두 녀학생이 남조선강철 미군 제2보병사단의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학살

사건을 계기로 불평등하고 굴욕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 철폐를 요구하며 시작된 반미투쟁은 대규모반미초보시위로 번져왔다.

2002년 사건 당시 유가족을 대리하여 살인마 미군을 고발하였던 변호사는 《20년째 SOFA조문을 한 글자도 바꾸지 못하고 한미불평등은 여전히 신효순, 정미선 두 녀학생이 남조선강철 미군 제2보병사단의 장갑차에 깔려 숨진 사건이다. 당시 미군장갑차에 의한 두 녀중학생학살

한편 집회에 앞서 민주로총의 반미자주노동자대회가 열렸다.

민주로총은 《효순, 미선의 죽음에 분노했던 민주로총은 20년이 지난 오늘 새로운 각오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바로잡겠다.》고 하면서 윤석열(정권)의 미국중심동맹정책, 군사력증강정책, 《대북적대정책》을 막아내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를 청산할 의지를 표명하였다.

본사기자 박철남



# 비루한 가난과 빈곤

비상히 강화되고있는 공화국의 자위적국방력에 흔히백산한 남조선의 윤석열대당이 《대북제재압박공조》를 비리질하기에 여념이 없다.

윤석열대당이 얼마전 남조선에서 미국, 일본상선들과 진행한 외교차관협의회를 비롯하여 상선들과 벌린 여러 반공화국대결모의판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이 회의들에서 미국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확대, 미전력부기의 남조선전개 등 《한미정상회담》합의사항들을 리행하라고 윤석열대당에게 다시금 압력을 가했고 남조선과 일본과의 갈등을 《해소》시켜보라고 《증재》노릇도 하였다.

일본은 그들대로 반공화국대결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제 리속을 채우기 위해 책동하였다.

윤석열대당은 미일상선들의 이러한 반공화국대결행위에 적극 추종하면서 《한미일3자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확약한 공동성명, 공동언론까지 발표하였다.

사태굴종과 동족대결이 체질화된 윤석열대당의 추악한 본색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는 가련한 추태이다.

지금까지 남조선의 보수 《정권》들이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고아대며 외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압박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어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얻은것이란 비참한 운명뿐이었다.

하지만 윤석열대당은 선행보수 《정권》들의 수치스러운 말로에서 교훈을 찾은 대신 그 무순 《북미싸이와 핵위협》에 대해 떠들며 시대착오적이며 매국배적적인 친미친일사대 굴종과 동족대결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이것은 날로 고도화되는 우리의 전락부기출현과 불가항력적위력에 전물환자들의 단말마적발악이다.

공화국은 이미전에 전쟁 그 자체를 반대하고 국권수호를 위해 전쟁억제력을 강화하는것이라고 천명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십나라족속들은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며 대조선적대시책중에 광분하고있다. 이것은 대조선침략야욕과 세계제대야망을 실현해 보려는 저들의 추악한 체질을 감추고 반공화국전쟁대결책동을 합리화해 보려는 불순한 기도에 따른 용납 못할 범죄행위이다.

사실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자위적국방력은 미국과 십나라족속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패권적야욕실현에 빗장을 지르고 그 자체를 짓눌러버리는 진물할 절대적임이 아닐수 없다.

하기에 입만 벌리면 《북조선의 위협》에 대해 떠들며 반공화국대결광판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저들은 침략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비현대화와 무력증강 등 할것은 다하면서도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에 대해서는 한사코 걸고들며 짓밟아서는것이 바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다.

이러한 미국, 십나라족속들과 야합하여 동족을 고지랄발광하고있는 윤석열대당의 당동은 상선의 옷설에 매달려 대결적대상을 실현하고 비무한 명줄을 부지해보려는 식민주주의의 가련하고 어리석은 짓거리이다.

하나 윤석열대당이 동족을 모해, 암살하기 위해 외세와의 《공조》에 매여달릴수록 역적대당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하여 우리 민족의 분노는 더욱 고조될것이며 비참한 종말의 시각만을 앞당기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남조선에서 현 집권자가 지난 지방자치제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야당을 누르고 이긴것을 자기의 《공로》인듯 이 떠들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은 취임 20여일만에 진행된 이번 지방자치제선거결과에 《국정》운영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보고 선거에 로골적으로 개입하는 등 선거 전 기간을 극도의 불안과 초조속에 보내다가 《국민의힘》이 이겼다는 선거결과가 나오자마자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윤석열효과》의 덕이라며 자기의 《공로》로 광고해나섰다.

이것이야말로 민심은 물론 보수세력내부에서까지 날로 높아가는 반윤석열기운을 묵살하고 정치적몰락을 올려보려는 해피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지금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윤석열의 집권 1개월은 실패한 1개월이라는 혹평이 쏟아지고있다.

그것은 친미친일사대매국정체과 광기어린 동족대결책동으로 남조선에 전례없는 의교안보불안과 대외경제관경악화를 불러왔고 독선적인 인사정책으로 《검찰공화국》, 《공안정국》, 《부패왕국》을 만들었는가 하면 《인기끌기식소통》놀음과 무지한 경제정책으로 민생만 더욱 악화시키고있는 윤석열에 대한 민심의 분노와 항거의 집중적인 표현이다.

사태매국과 동족대결, 무지와 무능, 독단과 독선, 독주와 인연, 해피한 것거리로 하여 집권초기에 벌써 민심과 여론의 비난배격의 초점

이 되어 궁지에 빠진 윤석열이 자기의 가련한 처지를 모면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 바로 지방자치제선거에서의 《윤석열효과》라고 해야 할것이다.

지금 윤석열은 여소야대의 정국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공동으로 해야 할일도 찾아본다느니, 당선된 광역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겠다느니 하고있는가 하면 교육감선거에서 당선된 보수성향인물들을 내세워 《교육의 보수화》를 강행할 기도로 팔적으로 드러내고있다.

이에 대해 남조선인론들과 전문가들은 이전 선거로 지방권력에서 여권이 우세한 구도가 형성된 조건에서 중

앙권력과 지방권력의 협공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을 정치적으로 암살하려는 기도라고 우려하면서 지방자치제선거후 윤석열의 독선적인 정치가 더욱 두드러지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총적으로 윤석열은 《국민의힘》이 지방권력까지 차지한것을 리용하여 날이 갈수록 멀어지는 자기에 대한 지지력을 만회하고 보수 《정권》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발판을 닦으려 하고있다.

하지만 사태매국과 동족대결, 파쇼공안동치와 특권속중심의 정치를 추구하는 윤석열과 《패거리들》은 자주와 민주, 평화와 통일, 참다운 삶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수 없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이것이 남조선민심이다.

본사기자 황금숙

# 몰락을 올려보려는 역겨운 놀음

# 갈수록 치열해지는 추악한 권력싸움

남조선의 《국민의힘》이 지방자치제선거후 그 무슨 《혁신》놀음을 벌려놓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인론들과 전문가들은 《국민의힘》 대표가 《혁신위원회》를 내온다 어쩐다 하며 《당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파세력을 확장하고 당내에 존재하는 각 계파들을 견제함으로써 당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국민의힘》 대표 리준석이 《당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파세력을 확장하고 당내에 존재하는 각 계파들을 견제함으로써 당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국민의힘》 대표 리준석이 《당개혁》의 칼을 빼들었지만 그것은 순전히 자파세력을 확장하고 당내에 존재하는 각 계파들을 견제함으로써 당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속심에서 출발한것이라고 평가하고있다.

《혁신》놀음을 다시 벌려놓은것은 자파세력을 확장하여 반대파들을 억제관리하고 당권을 계속 틀어쥐려는 다음 《국회》의 원형선거에서의 《공천》권을 행사하며 나아가서 《대통령》권력까지도 쥐어보려는 계산된 행위인것이다.

《당혁신》방안으로 《오

동당원제도입》과 《공천제도개혁》, 공직후보자에 대한 기초차격시험제도보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한것도 바로 그런 타산으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보아야 할것이다.

이러한 술책에 친윤석열파는 당대표의 《혁신》놀음이 《자기자신을 위한 정치》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난해나서는가 하면 그 무슨 《민들레》모임이라는 사조직으로 대응하려는 등 세력확장에 나서고있다.

여기에 권력을 위해 《국민의힘》에 몸을 담근 전형적인 정치철새인 품 《국민의당》 대표 안철수까지 당권경쟁에 촉각을 세우고있어 당내에서 계파들사이의 갈등과 마찰이 더욱 심화되고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내부에서 《자제해달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겠는가.

그러나 《국민의힘》의 머리 큰것들이 철부지애송이인 리준석의 《혁신》놀음에 그만큼 당했으면 이제는 미련을 버릴 때도 되었건만 아직도 이리저리 휘둘러주고있으니 정말 가관이다.

《국민의힘》것들이 이번 지방자치제선거결과를 계기로 야당을 수세에 몰아넣기 위한 정치공세에 매달리고있는것도 여론의 초점으로 되고있다.

알려진것처럼 《국민의힘》것들은 이번 지방자치제선거를 통해 민심이 극도의 오만함과 《발목잡기》에만 매몰된 야당을 처절하게 심판하였다는 희떠운 소리를 내

뱉고있는가 하면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후보였던 리재명이 당권을 장악하게 되면 미래가 없을것이라는 모략어론까지 내뿜리며 야당내부의 갈등과 싸움을 부추기고있다.

《여소야대》의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려는 책동이지만 짊어 있는 곳에 썩기가 들어가듯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개혁에 놀아나 동요하고 내부싸움만 벌리다가는 공멸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시사해주는것이기도 하다.

《혁신》놀음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암투와 갈등, 야당내부에 리간을 조성시키려는 《국민의힘》것들의 비렬한 책동은 추악한 정치적야욕실현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서슴지 않는 보수대당의 추악한 몰골을 다시금 부각시켜주고있다.

본사기자 전명진

# 미리감치 봐두어라

김태룡

만장앞에서 우쭐떨거리는 그 꼴 그야말로 철학사니없는 망나니로다

독특히 알아둬라 새치 혀가 목을 베인다는 격언을 잘못 들린 혀가 목을 감는다는것을 입건사도 못하는 대결병자 그 난치병자에게 내리치는 처방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파멸밖에

집력은 개가 더 짊어대는 법

더럽게 침방울 튀기지 말아 무모하게 날뛰는 지랄발광은 객기를 부리는덴 제격일지 몰라도 개 숭배 유지하기엔 전혀 도움 안되려니

차라리 《현충원》이라는데 갔던바에는 무덤자리 하나 봐둘걸 그랬다 대결에 미쳐날뛰는 광신자들은 제 지른 불에 타죽는게 속명이거늘 무지스러운 허세 이제 그만 멈추고 죽어 묻힐 곳이나 미리감치 봐두어라

# 여성혐오세력의 낮간지러운 추태

최근 윤석열대당이 행정부에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두게 하고 주요 장관 및 차관 급고위직에 여성들을 임명하는가 하면 《특혜 조치》들을 취하는것으로 여성층의 환심을 얻어보려 하고있다.

참으로 속이 뻘뻘 들어다보이는 《여성총괄어당기》놀음이 아닐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남조선에서 전체 유권자의 반수를 차지하고있는 여성층은 채용, 임금, 사회활동 등에서 여성차별대우를 받고있고 사회적으로 만연되고있는 성폭력, 가정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죄의 희생물로 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대당은 여성우대정책때문에 남성들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하면서 남녀갈등, 여성혐오를 더욱 부추기는 반여성정책에 매달렸다.

윤석열이 《대통령》선거기간 여성가족부대우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는가 하면 행정부부서에서 여성들을 배제하고도 장관으로 발탁할만한 여성이 없었기때문에 임명을 하지 못하였다고 천연스레 너까진것이 그 대표적 실례이다.

하기에 《한국여성단체연합》, 전국여성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를 비롯한 수백개의 여성단체들은 지난 《대통령》선거기간 윤석열대당을 막선시키기 위한 운동을 적극 벌리었으며 보수대당의 집권 이후에도 반여성정책의 즉시 철폐를 요구하는 집회, 기자회견을 연이여 벌리는 등 있다.

특히 이번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수많은 여성들이 《국민의힘》소속 후보들을 배척하고 야당후보들을 밀어주었다. 이로써 윤석열대당은 행정부에 여성가족부를 그대로 둔

다, 행정부의 주요 장관, 차관들에 해당 분야의 여성전문가들을 임명한다, 아동양육비를 높이고 임신부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하면서 저들에 대한 여성들의 불만과 반감을 녹여보려 하고 있는것이다.

하지만 시궁창에서 장미꽃이 필수는 없는것처럼 여성친시, 여성혐오세력인 윤석열대당에게 있어서 《여성친화정책》이란 여성들의 환심을 사서 저들의 통치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하다.

지금 윤석열대당의 교활하고 파멸적인 《여성총괄어당기》놀음을 두고 여성운동단체들과 각계층 여성들이 《성별갈등을 조장한 장본인들의 기만적인 속임수》, 《여성들의 삶을 목살하는 정권의 계속되는 범죄행태》, 《여성혐오의 주범들이 여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얼림수를 쓰고있다》, 《《국민의힘》은 여성혐오정당의 오명을 벗어버리기 힘들것이다.》고 규탄배격하고 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본사기자 강류성

# 《서풍짜리악단》



남조선의 윤석열 《정부》가 그 무슨 《당당한 외교》, 《전략적선명성》을 운운하며 미국의 대중국경제전략실현에 적극 추종해나서고있다.

지금 윤석열대당은 이전 《정권》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유지해왔던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균형외교》에 사 팔파하여 《한미동맹》강화위주의 《전략적선명성》을 견지해야 한다고 떠들고있는가 하면 《호상존중을 기조한 당당한 외교》,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당당한 외교》로 중국의 외교적압박에 굴하지 않고 맞대응하면서 쌍방외교관계 설정 30년을 계기로 중국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겠다고 떠들어대고있다.

또한 중국의 경제적압박에

당당하게 대응하며 경제안보를 실현하려면 《안미경중》으로부터 안보도 경제도 미국에 의존하고 협력하는 《안미경미》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내뿜고있으며 대중국경제를 위한 미국의 세계질서전환전략에 보조를 맞추는 방향에서 주요외교현안들도 추진하고있다.

이것은 윤석열대당이 미국에 추종하여 중국에 완전히 등을 돌려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가관은 윤석열대당이 미국이 저들의 패권적위위를 위협하는 중국을 견제할 방책이 없으니 남조선들을 돌격대로 내몰고있다는것을 모르고 헤딩 비교있는것이다.

윤석열대당은 친미사대굴

종에 환장이 되다니니 이전 보수 《정권》들의 대미추종행위, 대미굴종외교가 남조선에 몰아온 파국적후과파지 감감히 있고 분별없이 미국의 대중국경제전략에 적극 편승해나서고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도가 미국의 반공화국적대외정책과 대중국경제전략에 편승하여 《싸드》를 끌어들이는것으로 하여 남조선은 주변대국들의 핵타격목표판이 되고 류통과 관광, 금융 등 경제전반이 엄청난 피해를 입는 등 정치, 경제, 군사, 외교적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았던 안일였다. 당시 어느 한 남조선기업이 입을 경제적손실에만 해도 수억US\$나 된다.

윤석열대당이 미국의 대중

국경제전략에 추종하여 떠들어대는 《당당한 외교》란 무지한자의 한갓 만용이고 객기에 불과하다. 이제 그것이 어떤 끔찍한 화난을 불러왔는가를 하는것은 더 가해할 필요도 없다.

《센트워치신세》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조선반도주변국들사이의 짊어기워 체신머리없이 놀아낸 남조선당국의 가련한 처지를 표현하는 말로 쓰여왔다. 머지않아 세상사람들은 이 말과 더불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격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남조선의 참혹한 안보, 경제파탄상을 통해 선명하게 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정혁



# 국가와 사회의 따뜻한 보살핌속에

◎ — 6월 18일 장애자의 날을 맞으며 — ◎

공화국에서 진행되고있는 장애자보호사업은 장애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사회적정치적권리와 자유를 건전한 사람과 똑같이 보장하여 그들이 값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하는 사업이다.

공화국에서 진행되는 장애자보호사업은 70여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35(1946)년 6월 24일에 발표하신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 제18조에서 로동으로 인한 불구자와 직업으로 생긴 병에 의해 근무할수 없는 사람들의 생활조건보장대책을 제시하시어 장애자보호사업의 시초를 열어놓으시었다.

주체37(1948)년 2월에는 장애자들을 위한 조선민주맹인동맹이 결성되었다.

주체37(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창건된후에는 장애자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우대하며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는데것이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시책이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릴한 전파의 나날 조국을 지켜 몸바쳐 싸우다가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그들의 생활을 따뜻이 돌봐주도록 하시였으며 전후에는 전정기 부상당한 인민군대, 경비대 및 유격대원들과 적들의 만행으로 불구가 된 애국자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에게 기술기능에 대한 직업교육을 주기 위한 영예군인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주체48(1959)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룡아학교와 맹학교를 세워주시었다. 결과 장애어린이들도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장애자들에 대한 무료교육의 혜택은 맹학교나 통아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공화국에는 사회에 진출한 장애자들에게 기술교육을 주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자기능공학교, 설계원양성과 같은 직업학교들도 곳곳에 있다.

공화국에서는 장애자들에 대해 한치의 간격이나 차별을 두지 않고 그들모두가 건전한 사람들과 똑같이 본인이나 가족들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그들에게 기술기능에 대한 직업교육을 주기 위한 영예군인학교를 설립하도록 하시었다.

또한 주체48(1959)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룡아학교와 맹학교를 세워주시었다. 결과 장애어린이들도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간보다 아래로 할수 있는 권리를 주고있는것과 로동에 참가하는 장애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주고 정양과 휴양, 룡양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는것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우대적인 시책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에서는 조국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몸바쳐 싸우다 부상당한 영예군인들을 비롯하여 장애자들에 대한 무료교육의 혜택은 맹학교나 통아학교와 같은 특수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있다.

또한 주체48(1959)년 9월에는 전국의 모든 도들에 룡아학교와 맹학교를 세워주시었다. 결과 장애어린이들도 무료교육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

심속에 생인이 중단없이 진행되어 장애자들이 아무런 불편을 모르고 생활할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그대로 체현하신경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속에 공화국은 현대적인 육아원, 체육원, 양로원, 문수기회복지원을 비롯하여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들과 영예군인, 장애자들을 위한 사랑의 요양이 도처에 일떠서고 정연한 치료회복체계가 수립되었으며 질병과 교통신고, 로동체해로 인한 장애의 발생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장애자들의 행복과 희망에 넘친 생활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가 얼마나 우월하고 인민을 위해 바치는 조선로동당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축도이다.

본사기자 김충경

##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는 장애자들

남조선에서 장애자들의 삶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있다. 지난 4월 19일 남조선에서는 각지에서 올라온 발달장애자의 부모 2 000여명의 시위가 벌어졌는데 이중 550여명이 단체식발식을 하였다. 모은 장애자부모의 대부분이 엄마들이었다. 녀성의 상경과도 같은 머리카락을 지는 그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어서 소중한것을 내내테니 장애자자식들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절규했다. 이날 식발식에 참가한 사람들 가운데는 자폐장애자인인외손주들 뿐 아니라 버디도 있었고 장애자남동생들 24살의 처녀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아마도 우리모두의 가슴을 엑스레이로 찍어



본문 시꺼먼 색으로 나을것이다.》고 말하며 안락가음을 호소하였다. 그때의 상황을 남조선의 한 언론은 이렇게 전하였다. 《몇명이 동시식발을 해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이들이 관심보이는척이라도 할가? 100명? 200명? 강요하는이 하나 없는 상황에서 식발신청자가 쇠도했다. 300명, 400명을 넘어 어느덧 500명을 훌쩍 넘어섰다. 그만큼 절실한 마음들이 모였다. 이들의 요구는 《발달장애자 24시간 지원체계구축》이다. 사실이 내용은 새로우것은 하나도 없다. 현재도 시행중인 정책들이다. 다만 하등의 실효성없이 시행되고있기에 훌륭한 세부정책과 예산마련으로 실효성을 보장하라는 뜻이다.》 남조선에서 장애자라는 부름은 멸시와 랭대의 대명사이기도 하다. 빼스나 지하철도들 라기가 어려워 지체장애자들이 추운 겨울날 얼어서 빨개진 얼굴로, 혹은 비가 오는데 몸을 가릴 우산도 없이 가는것을 종종 볼수 있다. 너무 불편하고 억울하여 장애자들이 이동편의보장과 교육문제해결 등을 요구하여 울레호 지하철도에서 시위를 벌이자 여당의 대표라는자는 경찰들을 직구 투입하여 수백만시인들이 특정단체의 인질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느니, 《비문명적인 불법시위》라느니 하고 비난하였다. 이렇듯 《민생》을 떠드는 정치가들은 장애자들을 천시하는 발언을 공공연히 내뱉고 재벌들은 장애자들이 취직하려고 하면 《장애자에게까지 돈을 주며 시킬 일거리가 없다.》고 랭대하고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지난 1월에 발표한 《2021 장애통계연보》를 보면 2017년 남조선의 국내총생산대비 장애자복지예산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회원국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지금 남조선의 장애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는 (비정상적인 인간), (인간의 체모를 상실한 병다리)로 취급받고있다. 장애자라는 한가지 리유로 취직을 거절당하고 사람대접을 받지 못하고있다. 지어 혈육들에게서까지 따돌림을 당하고 범죄자들의 인신매매대상으로 되어 종당에는 목숨을 잃고있다.》고 자기들의 불우한 처지를 한탄하고있다.

본사기자

## 방문기

# 교복마다에 후대사랑을 담아간다

후대들을 위한 사업에 당적, 국가적인 힘을 최대한으로 돌리고있는 공화국의 각지 퍼복생산단위에서 교복생산을 계속 다그치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어느때없이 불리한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교복생산을 활기있게 밀고나가고있는 평양창광우공장을 찾았다. 공장구내에 들어서니 안화순지배인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후대들을 위한 국가적책이 그대로 학생들에게 가닿게 할 일념을 안고 교복생산에 떨쳐나선 우리 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기세가 이만저만이 아니랍니다.》 그의 말을 들을수록 교복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이곳 종업원들의 모습은 보고싶은 충동을 금할수 없었다. 우리는 지배인의 안내를 받으며 1작업반현장에 들어갔다. 드넓은 작업장을 꼭 채우고 기운차게 돌아가는 재봉기동음소리,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정교교환운동을 활발히 벌이며 생산속도를 높여가고있는 종업원들, 혁신의 새 소식을 전하는 속도관들... 이곳에서 우리와 만난 김현희작업반장은 후대들을 위한 보람찬 일을 하고있다는 긍지를 안고 교복생산을 다그치고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방역대전을 벌리는 속에서도 생산잠재력과 내부에비를 남김없이 동원하고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매일 맡겨진 교복생산계획을 이김없이 수행하고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부모들의 정을 다 합쳐도 비기지 못할 열화같은 사랑으로 조국의 미래를 꽃피우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후대사랑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돌발적인 방역위상상황으로 로력이 부족하였지만 교복생산계획을 조금도 드릴수 없다고 하면서 작업반원들 누구나 더 많은 일감을 맡아안고 헌신적인 투쟁을 벌여왔다고 한다. 그의 이야기를 듣느라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학생교복에 갖든 가슴뜨거운 사연이 되새겨졌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아이들에게 교복을 해입히는것은 조건이 좋으면 하고 어려우면 못해도 무방한 사업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우리 당의 정책이고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맵시있고 멋들어진 교복을 해입히실 확고한 결심을 피력하시면서 력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의 교복을 국가가 책임지

고 보장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정 책으로 내세워주시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교복생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뜨겁게 당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이시다. 어찌 그뿐이랴. 그 어떤 시련속에서도 교복생산을 중단없이 내밀도록 온갖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은정속에 교복생산을 위한 자체보장대책이 빈틈없이 세워지고 생산활성화의 동음이 새차게 울리고있는것 아니라. 감동을 금치 못하는 우리를 바라보며 안화순지배인은 공장의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가공속도를 높이면서도 교복을 보다 질 좋게 만들겠는가를 놓고 집체적지혜를 합쳐가고있다 말한다. 그를 따라 기술준비실에 들어서니 교복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색과 토론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언뜻 언뜻 보였다. 이곳에서 만난 리은복 기술준비실장은 교복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적인 조치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교복생산을 위한 기술감성이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우리의 학생교복이 어떤 교복이니까, 우리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새로 만든 교복

본들을 하나하나 세심히 보아주시며 교복을 성의있게 잘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입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숭고한 그 뜻을 새겨안고 자식들에게 옷을 해입히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제복마다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가는 공장의 기술자, 종업원들의 모습은 볼수록 미더웠다. 이틀만이나지 않아. 공장을 돌아보면 우리는 재단품을 제때에 보장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창안제작한 여러가지 지구를 리용하여 가공속도를 부쩍 높여나가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도 볼수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생각했다. 학생들에게 맵시있고 멋들어진 교복을 해입힐 일념으로 교복생산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는 이들이야말로 자라나는 세대세대들을 다 닮고 보란듯이 내세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후대사랑의 숭고한 뜻을 교복마다에 만발하게 꽃피워가는 《원색사》들이라.

공장을 나서는 우리의 눈앞에는 새 형태의 교복을 받아안고 기뻐할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모습이 밝은 미소속에 어려웠다. 본사기자 홍범식



## 력사에 기록된 감동깊은 인민적시책들

# 일하면서 배우는 공장대학의 창립

오늘 공화국의 근로자들은 조선로동당의 진진과학기술인재화방침을 높이 받들고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따라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마련해주신 특장적인 교육체계이며 과학기술과 교육발전의 세계적추세에 맞는 우월한 교육체계이다. 하다면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보지 못한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가 어떻게 마련되었는가. 전쟁의 포화속에 산천초목도 불타던 주체40(1951)년 1월 모연을 헤치시며 어느 한 공장을 찾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공장형편을 상세히 룡해하시고 공장의 복구방향과 방도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며 로동자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었다. 이날 전쟁의 후과로 관리일군들과 기술자들이 부족하다는것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의 지휘부인 인민군장부문제는 나라의 만년대계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라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자체로 관리간부들과 기술자들을 키워내야 한다고 힘있게 교시하시었다. 그러시고는 공장대학을 내오면 로동자들이 낮에는 공장에서 무기를 만들고 밤에는 학교에서 일마든지 공부할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생산에서 리합함이 없이 누구나 다 배울수 있다고 훌륭히 기술자로 될수 있다고 하시었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있어보지 못했던 공장대학에 대하여 들으면서 일군들은 걱정없이 힘써왔다. 그런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인민군간부의 양성을 위하여 앞으로 전선에서 싸우는 전투원들을 일부 소환하여 대학에서 공부를 시키려 한다고 하시며 이 공장에서 일하던 동무들도 소환해주겠는데 평양공립대학(당시) 분교형식으로 일하며 배울수 있는 대학을 내와야 하겠다고 강조하시었다. 모든것을 전쟁승리에 동원하여야 하는 때에 공장대학을 내오고 전선에 한명의 전사구경꾼에 비해 싸우는 전투원들을 소환하여 공장대학에 보내는것은 그 누구도 상상할수 없는 일이었다.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만이 내리실수 있는 대용단이었다. 가릴한 전쟁의 불길속에서 세계교육사에 없는 공장대학을 창립하시기 위하여 공장을 또다시 찾아주시

어머이수령님께서서는 준비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룡해하시고 공장대학의 성격을 밝히주시였으며 전선에서 소환되는 대학교원들을 먼저 공장대학에 파견해주시는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이렇게 되어 가릴치않은 전쟁이 벌어지던 주체40(1951)년 7월 세계 그 어디에도 없었던 첫 공장대학이 창립되게 되었으며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의 창립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전쟁의 포화속에서 태어난 첫 공장대학을 본보기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마다 일하면서 배우는 고등교육체계를 확대발전시키시어 수많은 근로자들을 창조와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시었다. 본사기자 림광훈

## 로동당세월이 좋아 장수복 누리갑니다

저는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얼마전에 백번째 생일을 맞은 개천시 군우동 제40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방정숙입니다. 이 땅에 태를 묻은 백성으로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이렇다할 보탬을 주지 못하고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오래 살고있는것만도 이를나위없이 고마운데 전인민적인 방역대전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백번째 생일을 맞고보니 생각이 깊어집니다. 오늘 악성전염병은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에서 수백만명의 소중한 생명을 사정없이 앗아가고있습니다. 그 사망자들의 대다수가 노인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직 우리 나라에서만은 엄격한 방역위상상황에서도 오�히려 장수자들이 늘어나는 민기 어려운 현실이 펼쳐지고있습니다. 세상사람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는 이 기적과도 같은 현실을 어찌 하려는 우연이라 하겠습니까. 우리 인민들이 무병무탈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것을 제일 큰 기쁨으로 여기는 어머니당의 은정속에서만 펼쳐질수 있는 력사에 튼튼한 사랑의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날에는 늘 받아안으면서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했던 그 사랑을 온전히 받기 어려운 상황속에서 매일, 매 시각 뜨겁게 받아안고있습니다. 사랑은 꺼져가던 생명에도 재생의 불을 달아주고 고목에도 꽃을 피워주는 불사약입니다. 그 말의 참뜻을 저는 열병으로 심하게 앓으면서 폐

부로 절감하였습니다. 자고로 로환무책이라고 하였습니다. 늙어서 생긴 병에는 고칠 방도가 따로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병에 차도가 없게 되자 이런 나이가 많으니 할수 없다고 맥을 놓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당의 인민사랑을 안고 매일같이 호담당의사가 찾아와 하루빨리 완쾌되도록 온갖 성의를 다해 치료대책을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인민반사람들, 동사무소일군들이 갖가지 보약과 영양식품, 부식물을 보내주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이런 감동깊은 광경을 어찌 상상이나 할수 있었습니까. 이러한 뜨거운 사랑과 지극한 정성이 있어 저는 마침내 병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

는 로동당의 손길이 있어 준 엄한 방역시련속에서도 백살장수자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현실이 꽃피날수 있는것입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근로자들이 장수복을 누리도록 온갖 은정을 베풀어주는 로동당의 품이 베를로고야말로 우리의 사회주의제도가 제일입니다. 하기에 우리 백살장수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무병무탈하여 행복한 여생을 보내고있는 긍지를 안고 《세월이야 가보라지》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릅니다. ... 로동당의 은덕으로 황혼기도 청춘이니 세월이야 가보라지 우리 마음 가슴소나

방정숙

평양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대성산의 옛 못들

대성산성을 돌아본 우리는 동행한 립금석 평양시민족유산보존사 실장으로부터 산성과 관련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

산성전이 대표적이던 중세기에 장기전에 대처하려면 물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했으므로 산성쌓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 문제의 하나는 물문제였다.

대성산에 물줄기가 없는 조건에서 고구려사람들은 산성을 쌓을 때 땅속의 물을 다 찾아냈으며 지어 비록까지도 잡아서 유효하게 썼다고 한다.

우리는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대표적인 옛 못들을 돌아보았다. 대성산성안의 못들은 그 모양이 네모난것과 둥근것, 삼각형 등 여러가지였고 크기와 깊어도 일정하지 않았다.

물깊이만 보아도 사람의 가슴정도까지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한걸음 훨씬 넘게 깊은 곳도 있었다.

옛 못들을 돌아보며 거기에 깃들여있는 전설들도 들을 수 있었다.

고구려가 대성산에 수도방위성을 건설하면서 음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축조한 가장 큰 못이라고 하는 잉어못은 외래철학자들이 대성산성을 포위하고 성안의 군민들을 기아위기에 몰아넣어 항복시키려 할 때 성안의 못에서 잉어를 잡아 적들에게 보여주는 기발한 책략으로 침략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성을 사수하였다는 전설에 따라 지었다고 한다.



동통호



미천호



사슴못



구룡못

복시키려 할 때 성안의 못에서 잉어를 잡아 적들에게 보여주는 기발한 책략으로 침략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성을 사수하였다는 전설에 따라 지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족의 령사에 기록되어있는 녀성인 룡족부인이 사슴들을 키우기 위하여 꾸다한 전설이 전해지고있는 사슴못, 아홉마리의 룡이 못에 있으면서 대성산일대가 가물어 논밭과 식물들이 말라버릴 때면 바람과 구름을 몰아오고 대동강물을 끌어다 비를 내려주었다는 전설이 깃든 못들도 있었다.

이밖에도 고조선의 옛땅을 수복하고 고구려의 국력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한 고구려의 동천왕과 미천왕의 시호를 딴 호수들도 있었다.

옛 못들은 고구려사람들의 애국의 넋을 길이 전해주며 인민의 문화유산으로 훌륭히 전승된 대성산의 풍치를 더욱 돋구어주고있었다.

맑고 푸른 조선동해와 잘 어울려 마치 푸른 주단우에 병풍을 세워놓은듯 그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죽도는 강원도 통천군 자산리야마다에 있었다. 죽도의 면적은 0.054km<sup>2</sup>이고 둘레는 1km이며 높이는 41m이다. 섬의 북쪽과 동쪽해안은 깎아세운듯한 절벽을 이루고 있어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고 서쪽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다. 북서쪽바다에는 와룡, 립충, 속이 구새먹은 나무처럼 둥근것, 꼭대기에 울러놓은 모자처럼 돌을 이고있는 것 등 여러 모양의 돌들이 많다.

천연기념물 죽도

죽도에 2개의 작은 동굴이 있는데 굴안에도 역시 총석류들이 출몰되어 있다. 기묘한 현무암의 주상절리가 발달한 150여개의 6각기 등모양의 립충들은 20~30m 높이로 절벽을 이루고있으므로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고 서쪽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어 사람들이 오르내릴 수 있다. 북서쪽바다에는 와룡, 립충, 속이 구새먹은 나무처럼 둥근것, 꼭대기에 울러놓은 모자처럼 돌을 이고있는 것 등 여러 모양의 돌들이 많다.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들

여자력기선수 립은심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선수권대회 여자 64kg급 경기에서 3개의 은메달 쟁취. 2019년 국제력기연맹 세계력기대회 여자 71kg급 경기에서 3개의 금메달 쟁취. 그는 10여차례의 국제경기들에서 20개의 금메달을 포함한 30여개의 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공훈체육인으로 되었다.

그의 남다른 우점은 자신에 대한 높은 요구성과 함께 기술 동작의 세부에 이르기까지 완전무결하게 소유하기 전에는 훈련장을 떠나지 않는것이다. 립은심은 지난해에 진행된 국내경기들에서 2개의 금메달과 1개의 은메달을 쟁취하는 성과를 이룩하고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지난해까지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선수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본사기자

본사기자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방법을 개선해간다

-고려성균관에서-



교육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종전의 리론교육을 위주로는 학습과 문헌연구에 기초한 교수로 전환시키면서 실험실습을 비롯한 실천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한편 교육의 물질적토대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하고있다.

교육내용의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를 일관하게 들어 취고나가고있는 식료공학과와 고려방직학부, 교육과학연구소의 교원들은 학생들의 사고능력과 응용능력을 개발시켜줄수 있는 새 교수방법들을 적극 탐구활용하고있다.

원격교육학부에서는 가상현실기술을 리용하여 학생들의 탐구능력과 인식효과를 높일수 있는 모의실험실습체계, 가상참관체계를 받아들이는 한편 사유지도교육을 짜고들이 학생들의 실력을 제고하고있다. 대학에서는 모든 교원들이 학생들을 나라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인재들로 육성하는데 기본목적을 두고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체제와 교수관리를 개선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본사기자



특하기 위한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있다. 교육지원프로그램들을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며 학부, 강좌들에

공화국의 고려성균관에서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는 새 교수방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벌려나가고있다.

새 세기 교육혁명의 요구에 맞게 대학에서는 목요강좌의 날 운영과 교수합평회 등을 통하여 교육내용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이

사화

몽천 (2)

글 권영희, 그림 김윤일

그들이 마당안에 들어서자 우물에서 무엇인가 썩고있던 불목 하나가 일어나 공손히 절하며 《어서 오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였다. 리서방이 《우리는 금강산 구경 온 길손인데 날이 저물었기로 하루밤 묵어가자고 들렀소.》 하니 그는 물물은 손을 들어 암자뒤를 가리키며 《저기 잠간 앉아계십시오. 우리 스님이 지금 저녁 불공을 드리는중이십니다.》 하였다.

그들이 퇴암으로 가는데 문득 리서방이 발걸음을 멈추고 한곳을 지켜보며 《무어, 몽천이라?...》 하더니 불목 하나가 돌아다보고 물었다. 《이 돌에 몽천이라 써있으니 이 샘이름이요?》

《네, 그렇습니다. 무어 신령이 꿈에 나타나서 얻은 우물이라 《몽천》이라 한다 하더이다. 이따가 우리 스님한테 들으십시오. 자랑삼아 늘 이야기하곤 하십니다.》 하고 불목 하나는 말하였다. 《오늘 밤 스님 이야기 좀 들읍시다. 저 우물이름의 유래도...》

그는 너무나 아쉬워 한탄하기를 마지 않았다. 《이 좋은 자리에 물이 없으니...》 하며 할수없이 다른 곳으로 가려다가 너무 피곤하여 큰 로송에 기대앉아있었는데 만산에 흐드러지게 핀 꽃향기에 취해 그만 잠이 들었다.

《그에서 저 샘이름이 몽천이 되었소그려. 하하...》 하고 리서방이 말하기를 끊으니 젊은 스님은 한옆에 놓여있는 물대접을 끌어당겨 한모금 벌컥 마시고나서 《네, 그래서 로스님이 그곳에 샘을 파고 샘이름을 《몽천》이라 하고

민족요리

가막조개젓

음식감으로 가막조개살 300g일 때 무우 100g, 소금 6g, 참기름 5g, 사탕가루 10g, 파 5g, 마늘 10g, 생김초추가루 2g, 참깨 1g을 준비한다.

아 익힌다. 익으면 찹시에 담고 닭은 찹개를 뿌려낸다.



본사기자

평화의 위대한

《개성》과 《특성》

《개성》이나 《특성》이나 다 《그것에만 있거나 그것을 특징지을수 있는 성질》이라는 뜻에서 같은 점이 있다. 그러나 《특성》이 주로 사물과 현상에 고유한 성질을 나타낸다면 《개성》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그 사람에게만 고유한 특성》이라는 뜻으로 주로 사람의 성격에 관하여서만 쓰는 말이라는데서 《특성》과 구별된다.

본사기자